
2016년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 참가결과 보고

The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2016
(2016. 10.24.~28., OECD, CC4/CC12)

2016. 11.



경 제 통 계 국
소 득 통 계 과

차 례

I. 출장개요	1
II. 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	1
1. 회의개요	1
2. 2016년 회의주제 및 일정	2
III. 주요 주제별 회의내용	3
1.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(WPFS)	3
□ 국민대차대조표 및 금융통계 관련 작성	
□ G-20 Data Gaps Initiative	
2.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	7
□ 국민계정과 금융통계 간 정합성	
□ 미거시 통계 간의 연계	
□ 통계단위,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	
□ 측정관련 이슈 등	
3.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(WPNA)	13
□ 최근의 아일랜드 국민계정	
□ 디지털 경제	
□ 국민계정의 재설계 등	

< 부 록 > 참고자료

1. 회의주제 및 일정 (Draft Agenda)
2. 발표 논문초록 (Annotated Agenda)
3. 발표 논문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
4. 참가자 명단 (List of Participants)

I. 출장개요

- (출장자) 소득통계과 홍현정
- (출장기간) 2016. 10. 23.(일) ~ 30.(일)
- (출장목적) OECD 국민계정작업반 회의 참가
 - *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(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, WPNA): SNA 관련 현안, 최근 연구성과 및 각국의 실무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
- (출장지역) 프랑스 파리

II. 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

1. 회의개요

- (목적) SNA 관련 최근의 현안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지역소득통계 및 국가자산통계의 개선 및 개발작업에 환류
 - * '2008년 세계 금융위기'의 경험을 계기로 금융 및 실물부문의 통합적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10년부터 금융통계 작업반(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, WPFS)과 공동 개최
- (주관) OECD 통계국 (OECD/STD)
 - * 의장: Peter van den Ven (OECD 통계국)
- (기간 및 장소) 2016. 10. 24.(월) ~ 28.(금), OECD 본부 회의센터 (CC10)
 - * (회의진행) 10. 24. - 10. 25.: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(WPFS)
10. 25. - 10. 27.: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(WPFS+WPNA)
10. 27. - 10. 28.: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(WPNA)
- (참가자) 각국 국민계정 전문가 및 실무자, OECD, Eurostat, ECB 및 UNECE 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참석
 - * 한국: 통계청과 한국은행 [김영태 국민계정부장(단장), 김현정 국민계정연구반장, 김용현 자금순환팀 과장, 신동주 국민소득총괄팀 조사역 및 김태정 주OECD 대표부 주재관] 관계자 6명 참가
- (기대효과) 국민계정 관련 최근의 연구성과 및 각국의 경험을 흡수하여 향후 지역계정 및 국가자산통계의 개선·개발작업 환류 및 추가 이행작업의 기본방향 설정

2. 회의주제 및 일정

□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(WPFS): 10.24.(9:00) - 10.25.(12:30), CC4

주 제	주 요 내 용	발 표
1. 국민대차대조표 및 자금순환통계 작성의 필요성	■ 국민대차대조표 개발의 필요성	IMF
	■ 자금순환통계 이용자 관심사항	일본
	■ 가계부문의 실질 수익률 분석 결과	독일
	■ 미국의 투자펀드 특징	미국
2. G-20 DGI	■ 2단계 사업의 목표와 실행계획	IMF
	■ 자료수집 및 향후 계획	OECD
	■ 상세 자금순환통계 개발 및 향후 계획	영국

□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: 10.25.(14:00) - 10.27.(15:40), CC12

주 제	주 요 내 용	발 표
1. 거시통계 정합성 관련 논제	■ 국민계정과 국제수지 편제를 위한 통합처리방법	영국
	■ 국민계정과 국제수지 통계의 정합성	Eurostat
	■ 유럽의 제도부문계정과 국제수지 간 정합성	ECB
2. 미시 및 거시통계 연계성	■ 가계의 소득분배지표 편제시 미시-거시 차이 처리방법	ECB
	■ 네덜란드의 부(wealth)와 배분	네덜란드
	■ 덴마크의 미시 거시 자료	덴마크
	■ 유럽의 가계부문 조사자료와 금융계정 연계	ECB
	■ 기업체 자료를 이용한 미시-거시 연계	OECD
	■ 무역자료와 기업체통계의 연계	OECD
3. 통계단위	■ 현 통계단위의 검토	OECD
	■ 통계단위	캐나다
	■ 법적단위에서 기업체로 유럽의 경제통계 구조 전환	Eurostat
4. 정보전달	■ 멕시코의 국민계정 통계 정보전달 방식 개선	멕시코
	■ 한국의 국민계정 보도와 대응	한국
	■ 물가통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달방식의 사례연구	영국
	■ 통계의 관심 제고를 위한 정보전달방식 변화	OECD
5. 행정자료와 빅데이터 사용	■ 국민계정 변화를 위한 행정자료 사용	노르웨이
	■ 핀란드의 국민계정 편제시 2차 자료원 사용 사례	핀란드
	■ 행정자료 사용의 극대화로 기업체통계 개선효과	뉴질랜드
	■ 칠레의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세제정보 사용	칠레
	■ 국민계정 관광업 편제시 빅데이터의 사용사례	멕시코
6. 측정이슈	■ 인도네시아의 금융서비스 추계시 FISIM 이행현황	인도네시아
	■ 단일환가 방식의 문제점	IMF
	■ 콜롬비아의 국민계정 개선사례	콜롬비아
	■ 한국의 분기별 소득계정 개발	한국

□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(WPNA): 10.27.(16:10) - 10.28.(17:00), CC12

주 제	주 요 내 용	발표/사회
1. 글로벌 생산	■ 체코의 서비스 수출입 추계	체코
	■ 아일랜드의 2015년 국민계정 결과	아일랜드
2. 디지털 혁명	■ 디지털화 경제에 따른 GDP 측정	OECD
	■ 공유경제(sharing economy)	캐나다
	■ 디지털 경제의 규모	뉴질랜드
	■ 디지털경제 측정의 도전과제	미국
	■ E-플랫폼의 개념과 측정이슈	Eurostat
3. 패널토론	■ 디지털 경제: 영국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한국	OECD
4. 국민계정 재설계	■ 네덜란드의 국민계정 작성 변화 방향	네덜란드
	■ 영국의 국민계정 작성 재설계 방향	영국
	■ 남아공의 GDP 편제 통합과정의 교훈	남아공
	■ 국민계정 자동조정(automatic balancing) 방법	스웨덴
5. 정보공유	토지와 기타 비금융자산의 T/F 활동	OECD
	연간 PPP 작업 갱신	OECD

III. 주요 의제별 회의내용

1.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(WPFS)

□ (논의배경) 국민대차대조표 및 자금순환통계 작성 필요성, 금융통계를 이용한 분석결과, G-20 DGI* 관련 데이터 제출 등에 대해 토론 발표

* G-20 DGI(Data Gaps Initiative): IMF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G-20 대상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데이터 생산 및 국가별 비교성 제고 노력 중

□ (국민대차대조표 작성 필요성)

○ (IMF) IMF 대표는 시스템리스크로 발생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국가별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차대조표(national balance sheet) 개발의 필요성 제시

- 시스템리스크에 따른 금융위기는 거시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거시금융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수치적인 분석 체계(quantitative framework) 부재

- SNA 체계에 따른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발은 경제부문별 자산 및 부채의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과거 금융위기의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,

금융위기 유발요인들이 축적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표로 활용 가능

- 각국 참석자들은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발이 필요함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, 통계에 반영할 다양한 금융위기 유발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

○ (독일) 가계부문이 보유한 금융 포트폴리오의 실질 수익률을 상세자금 순환표 및 금융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대하여 발표

- 가계부문의 금융자산은 예금, 채권, 주식 등으로 구성되며, 이자수익, 배당수익, 평가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에 발생
- 가계부문의 실질수익률은 금리하락으로 채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 및 연금수령, 투자펀드지분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전 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나타냄

○ (미국) 미국의 투자펀드의 특징 등에 대하여 발표

- 미국은 2008SNA에 따라 투자펀드를 MMF, Non-MMF*로 분류하고 있으며, Non-MMF 중 헷지펀드 및 PEF는 자료의 부족으로 편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

* 뮤추얼펀드, 폐쇄형펀드(closed-end funds), ETF(exchange-traded funds), 부동산펀드(REIT), 헷지펀드 및 PEF(private equity funds)

- 1990년대 이후, 경기 호황에 따른 수익률 제고, 연금체계 변화, 펀드시장의 경쟁에 따른 수수료 감소 등에 따라 투자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

□ (G-20 DGI) IMF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단계사업이 발효됨

○ (IMF) G-20 DGI 2단계 사업의 목표와 실행계획(action plan)에 대하여 발표

- 2009-2015년 중 진행되었던 DGI 1단계 사업은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9월 G-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2단계 사업이 발효
- 각 권고사항별로 핵심목표, 추가이행목표로 분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

[그림 1] DGI 1단계 및 2단계 사업

DGI-I Recommendations	DGI-II Recommendations
I.1: Mandate	II.1: Mandate
Build-up of risk in the financial sector	Monitoring risks in the financial sector
I.2: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(FSI) ●	II.2: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(FSI)*
I.3: Tail risk ●	II.3: FSI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Measures (CDM)
I.4: Aggregate Leverage and Maturity Mismatches ●	II.4: Data for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(G-SIFIs)
I.5: Credit Default Swaps (CDS) ●	II.5: Shadow Banking
I.6: Structured Products ●	II.6: Derivatives
I.7: Securities data ●	II.7: Securities Statistics*
Cross-border financial linkages	Vulnerabilities, Interconnections, and Spillovers
I.8&I.9: Data for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(G-SIFIs) ●	II.8: Sectoral accounts*
I.10&I.11: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(CPIS) ● and International Banking Statistics (IBS) Participation ● & Enhancement ●	II.9: Household Distributional Information
I.12: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(IIP) ●	II.10: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(IIP)
I.13&I.14: Financial and Non-financial corporations' cross border exposures ●	II.11: International Banking Statistics (IBS)*
Vulnerability of domestic economies to shocks	II.12: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(CPIS)*
I.15: Sectoral accounts ●	II.13: Coordinated Direct Investment Survey (CDIS)
I.16: Distributional Information ●	II.14: Cross border exposures of non-bank corporations
I.17: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(GFS) ●	II.15: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(GFS)*
I.18: Public Sector Debt ●	II.16: Public Sector Debt Database (PSDS)*
I.19: Real Estate Prices ●	II.17: Residential Property Prices (RPPI)
Communication of Official Statistics	II.18: Commercial Property Prices (CPPI)
I.20: Principal Global Indicators ●	Communication of Official Statistics
	II.19: International Data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
	II.20: Promotion of Data Sharing

● Recommendations that are completed based on the targets that were introduced in 2014.
 ● Recommendations where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and are close to completion pending participation by all G-20.
 ● Recommendations where progress was slow.
 * Indicates priority areas identified by the G-20 economi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2015.

[그림 2] DGI 2단계 사업을 위한 국제기구 역할분담 현황

Recommendation II.1: Mandate of the DGI	IAG (IMF*/FSB*)
Recommendation II.2: FSIs	IMF*
Recommendation II.3: CDM	IMF*
Recommendation II.4: G-SIFIs	FSB* (IMF)
Recommendation II.5 Shadow Banking	FSB* (OECD)
Recommendation II.6 Derivatives	BIS*, FSB*
Recommendation II.7 Securities Statistics	BIS*, ECB* (WGSDB)
Recommendation II.8: Sectoral accounts	IMF* and OECD* (IAG and ISWGNA)
Recommendation II.9: Household Distr. Inf.	OECD* (Eurostat, ECB)-IAG
Recommendation II.10: IIP	IMF*
Recommendation II.11: IBS	BIS*
Recommendation II.12: CPIS	IMF*
Recommendation II.13: CDIS	IMF*
Recommendation II.14: Cross border exposures of non-bank corporations	BIS*, IMF*, OECD*
Recommendation II.15: GFS	IMF*
Recommendation II.16: PSDS	World Bank* (IMF, OECD, BIS)
Recommendation II.17: Residential Property Prices	IWGPS* (IAG)
Recommendation II.18: Commercial Property Prices	IWGPS* (IAG)
Recommendation II.19: International Data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	IMF*, Eurostat*
Recommendation II.20: Promotion of Data Sharing	IMF*, Eurostat*

- IMF 대표는 WPFS회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은 채권채무관계

2.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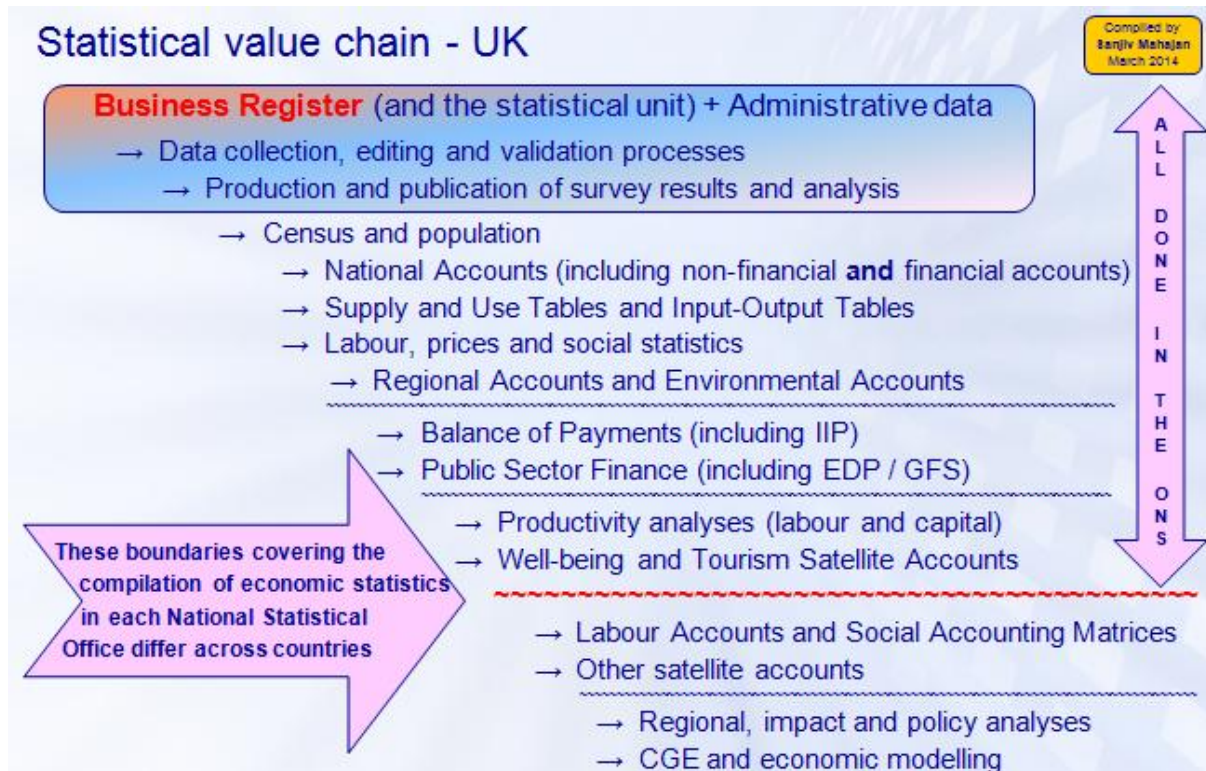
□ (논의배경) 국민계정과 금융통계간 정합성, 미·거시 통계간의 연계, 통계 단위,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, 측정 관련 이슈 등에 대해 토론 발표

□ (국민계정과 금융통계간 정합성)

○ (영국) 공급사용표 및 투입산출표 등을 이용하여 도출된 국민계정 통계와 국제수지를 비롯한 여타 금융통계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자국의 통합 프로세스를 소개

- 1989년 이후 단일기관(영국 통계청)에서 국민계정 및 국제수지통계 등을 편제 및 공표함에 따라 통계간의 정합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었음을 강조

[그림 4] 영국통계청의 통계작성 영역



○ (ECB) 유로지역 국가들의 국민계정과 국제수지통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 발표

-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SNA2008과 국제수지통계 작성기준인 BPM6간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다수의 유로국가들은 양 통계간 상당한 불일치

- 유로국가의 국민계정과 국제수지통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T/F가 활

동 중에 있으며, 동 업무의 최종보고서를 2017년 2월경 ESCB에 제출

□ (미·거시 통계간의 연계)

- (OECD) EG DNA(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National Accounts) 활동 및 미·거시 통계간 차이(micro-macro gaps) 발생 원인 발표
 - EG DNA는 가계 그룹별 소득, 소비 및 저축에 대한 배분결과를 국민계정 개념과 일치하도록 방법을 개발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
 - 주요 미·거시 자료의 차이 발생 원인으로 국민계정 총합의 품질, 개념과 분류차이에 대한 가정, 지하경제 또는 불법 생산활동에 대한 조정, 미시 자료의 추정오차, 미시자료의 관측오차 등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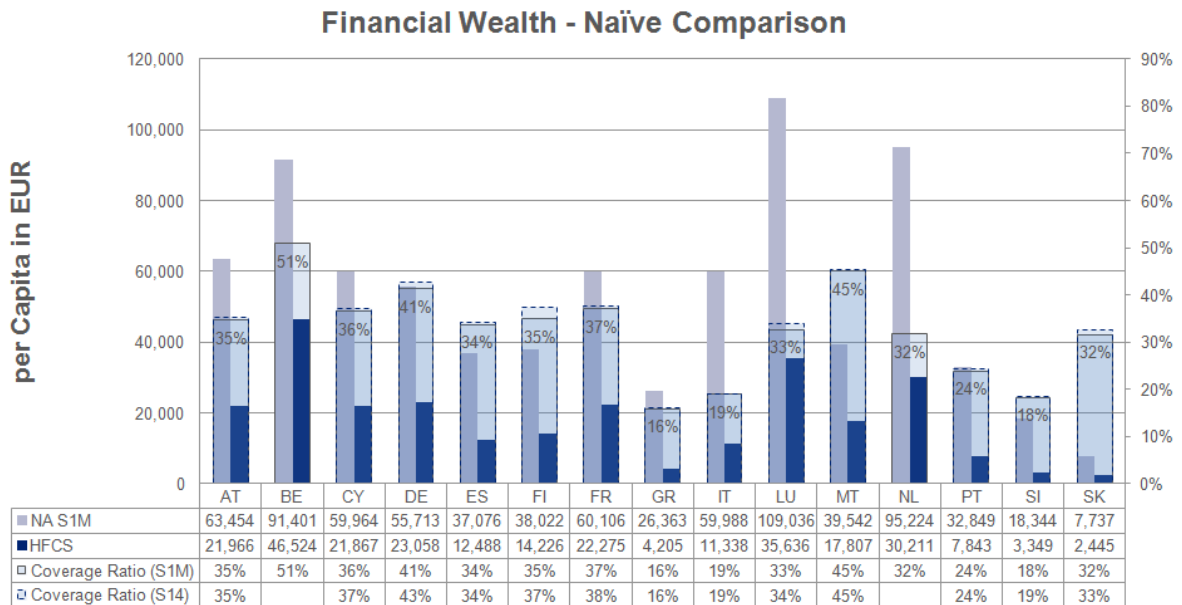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미·거시 통계 연계 프레임워크 예

<i>Item xx.</i>	<i>Estimates</i>					
I National account total (A)	...					
- Adjustment for NPISH (B1)	...					
- Adjustment for non-private households (B2)	...					
- Adjustment for expenditures of non-resident households on the territory (B3)	...					
= Adjusted NA total (C=A-B1-B2-B3)	...					
		Q1	Q2	Q3	Q4	Q5
II Micro total (D)
= Macro-Micro gap (E=C-D)	...					
III Conceptual or classification issues (F)
Underground and illegal activities (G)
Other elements missing in micro data (H)
Estimation errors (under-/overcoverage) (I)
Measurement errors (under-/overreporting) (J)
Reasons n.e.c. (K)
= Remaining gap (L=E-F-G-H-I-J-K)
TOTAL (=D+F+G+H+I+J+K+L)

- (캐나다) 국세청 및 기업등록부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자국의 사례 발표
 - 법인세(T2, corporate income tax), 근로소득 명세서(T4, statement of remuneration paid), 고용관련 기업신고내역(PD7) 등 국세청 자료와 기업등록부(business register) 이용
 - 지역 공급사용료 및 산업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별, 산업별로 배분하고 이를 미시분야 연구에 적극 활용

- 확장 공급사용표(extended SUT) 작성은 중간투입, 부가가치, 수출, 수입 등의 강도(intensities)를 기업 특성별로 파악가능하며 이를 위해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 중
- (ECB) 유로국가의 미시 및 거시 통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그룹의 활동 내용 소개
 - 동 전문가그룹은 2015년말 ECB 산하 통계위원회 논의 결과 발족되었으며,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무 회의를 진행한 바 있음
 - *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각국의 미거시통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ECB측에서 의장과 secretariat을, Eurostat과 OECD에서는 observer 역할을 담당
 - 분석 대상 통계로는 가계금융 및 소비 조사(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)와 금융계정(Financial Accounts)이며, 첫 단계는 양 통계간의 불일치 현황을 파악

[그림 5] 국가별 금융통계-조사통계 간 미거시 통계 불일치 비교



- 향후 2017년 1~2/4분기중 ECB 통계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후, 동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할 예정

□ (통계단위)

- (OECD) 국가별 통계단위(statistical unit) 적용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

발표

- 동 조사는 ISWGNA(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) 및 AEG(Advisory Expert Group)에서 각국의 국민계정 편제시 적용하고 있는 통계단위를 파악하기 위함
 - 지난 2016년 9월 OECD는 본회의(OECD WPFS/WPNA) 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,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32개국이 응답하였음
 - 조사 결과, 공급사용표에서는 사업장(establishment)과 활동종류별 단위(kind-of activity unit)가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, 제도부문별 계정에서는 기업(enterprise)과 법인(regal unit) 단위가 가장 많이 적용
 - * 지역계정에서는 대체로 사업장 기준으로 통계단위가 적용되고 있음
 - 이는 2008 SNA 권고사항에 대체로 부합하나,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상이한 통계단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 국가 계정내에서도 복수의 통계단위가 혼합 적용되고 있는 상황
 - 이에 따라 OECD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, 향후 국민계정뿐만 아니라 기업통계 실무자의 의견도 함께 모아 일관된 통계단위에 대한 기준방안 도출 필요
- (캐나다) 상이한 통계단위(사업체, 법인, 기업체 등) 적용시 산업별 지역별로 총매출액(total revenues)과 영업이익(non-financial operating surplus)의 변화를 비교분석
- 분석결과, 자국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편제 단위에서는 기업단위(enterprise level) 적용이 이용성, 접근성 및 비용성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임
 - 다만, 지역을 고려할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장 단위가 더 적합함
- (커뮤니케이션)
- (한국)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, 국민계정 공표원칙과 실제 공표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언론 환경의 특징, 반응 및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발표

- 각국 대표들은 국민계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국내외 언론환경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,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 운영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
- 특히,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언론대응 사례도 언급하면서 언론 대응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공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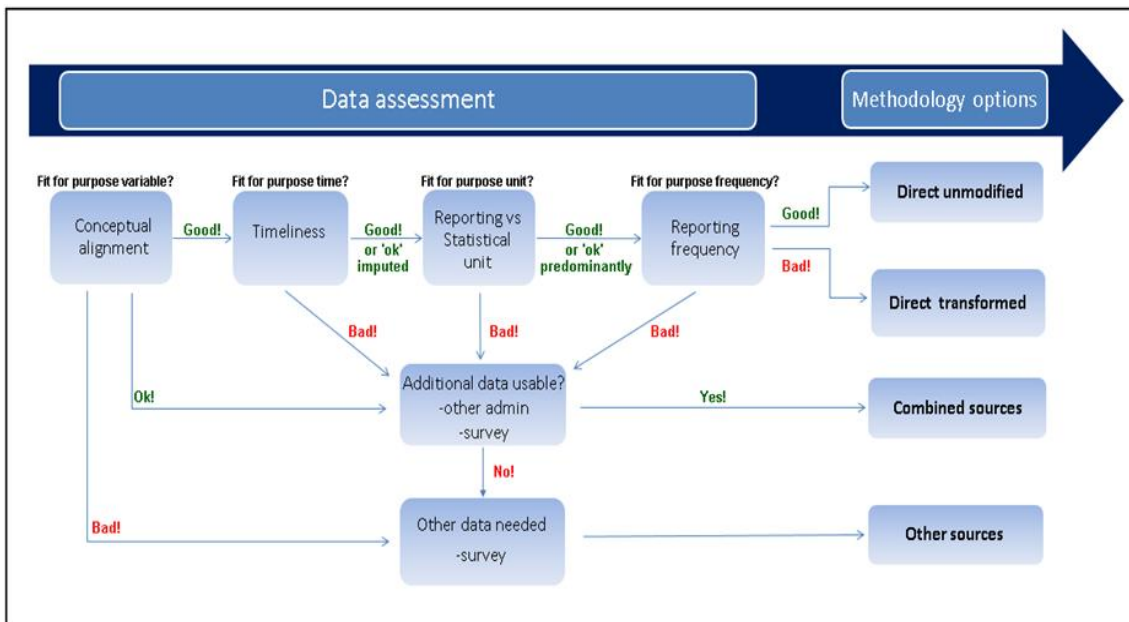
□ (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)

- (노르웨이) 1989통계법 제정 이후 등록기반 통계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기관 간 자료처리 및 통계생산 방법 등에 대해 발표
 - 주로 기업등록부(Central Coordinating Register for Legal Entities), 인구등록부(Central Population Register) 및 토지대장(cadastre)이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역할을 하며, 개인식별번호(PIN), 기업식별번호(BIN), 주소 등이 연계항목으로 이용
 - 2002년부터 금융거래장부가 경제구조통계(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) 작성에 적용, 2003년부터 부가가치세 등록부가 분기별 매출액 통계에 적용되고 있음
 - 2015년부터, 복지행정부(The Norwegian Welfare Administration), 국세청(The Tax Administration), 통계청(Statistics Norway)의 3개 기관 등이 협력하여 “A-ordning” 연계망을 구축하여 매달 1회 지급된 임금, 연금 및 기타수당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음
 - 아울러,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등록기반 자료가 생성될 초기 단계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
- (핀란드) 행정자료를 포함한 2차 자료(secondary data)를 활용하고 있는 자국 사례를 발표
 - 비용측면에서의 효율성, 조사응답자의 부담완화, 다양한 포괄범위, 비교적 높은 적시성 등이 장점으로 보이나, 행정자료와 통계간 항목의 포괄범위 차이, GDP속보에 비해 자료가 늦게 확보되는 점, 잦은 revision 등이 보다 광범위한 자료 활용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
 - 통계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한 방안도 꾀하고 있으며, 다양한 행정자료를 보다 쉽게 처리

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기법 등 방법론 연구 수행 중에 있음

- (뉴질랜드) 통계생산에 있어 통계조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자료를 전면적으로 이용한 새로운 통계작성체계로의 변환을 꾀하는 자국 사례를 발표
 - 동 작성체계는 제조업 및 도소매조사의 응답부담을 50% 경감시키고, 통계품질 개선, 통계생산의 유연화(예, 세분화), 다양한 통계생산의 증대,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등을 장점을 지님
 - 또한 행정자료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통계생산시 행정자료의 가용성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함

[그림 6]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생산 가능성 판단 평가 예시



- (포르투갈) 자국의 금융계정 통계 작성을 위한 DB의 종류 및 활용현황에 대해 발표
 -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부, 통계청 등과 협력하여 개인 신용자료, 기업 재무상대표 데이터베이스, 채권통계 및 국제수지통계 DB 시스템 등을 경제주체별로 세분화하여 구축
 - 동 DB로 작성된 자금순환통계 및 상세자금순환통계를 이용하여 비금융 부문의 부채 및 경제주체별 금융연계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 실시
- (칠레) 조세자료를 활용한 자국의 국민계정 편제 시스템 소개
 - 부가가치세, 소득세, 임금, 부동산 소유현황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

향후 미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강조

- 다만, 조세자료는 고소득층 소득 누락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료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부연

□ (측정 관련 이슈) 실질지표로 환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디플레이션 적용의 권고 피력

○ (IMF)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8개국을 대상으로 디플레이션 방식 관련 사례연구 결과를 발표

* 한국, 벨기에, 브라질, 캐나다, 프랑스, 일본, 네덜란드, 미국

- 이중 디플레이션(double deflation)은 최근의 중간투입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우수하나, 현실적인 적용의 한계 언급
- IMF대표는 8개국을 대상으로 이중 디플레이션과 단일 디플레이션 적용시 총부가가치를 시현해 본 결과, 단일 디플레이션을 적용할 경우 편이(bias)가 발생하며 이는 GDP의 과소 또는 과대 추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
- 이에 따라 동 대표는 현재 단일 디플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, 단기적으로는 단일 외삽(single extrapolation)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중 디플레이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

○ (한국) 우리나라 분기 소득계정 시산현황에 대해 발표

- 분기 소득계정 시산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기초자료 현황 및 세부 항목별 방법론을 설명

3.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(WPNA)

□ (논의배경) 최근의 아일랜드 국민계정, 디지털경제, 패널토론, 국민계정 재설계 등에 대해 발표

□ (최근의 아일랜드 국민계정) 아일랜드 대표는 자국의 2015년 실질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주요 요인과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

○ (아일랜드) 2015년 아일랜드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2,439억 유로로 전년대비 26.3% 증가하였으며, 이는 직전 추정치 7.8%에서 대폭 상향 수정

- 동 대표는 아일랜드가 기본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, 이전한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증대된 지적재산이 대차대조표(balance sheet)에 반영된 과정 설명
- 이 결과 아일랜드의 수출액이 크게 늘고 부가가치 항목인 고정자본소모와 영업잉여가 큰 폭 증가
- 각국 대표들은 아일랜드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아일랜드 실물경제 흐름 및 변화를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으며,
- 해외생산(global manufacturing) 처리문제, 경제적 소유권 개념 재설정, 지적재산권 자산 처리문제, GDP의 대체지표로서의 NDP 활용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 진행

□ (디지털경제)

- (OECD)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경제의 대표적 사례들(에어비엔비, 우버 등)에 대한 GDP 통계의 측정관련 이슈 및 회원국들의 사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
 - GDP 통계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(SNA)는 디지털경제하에 발생하는 거래들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견고(robust)하다고 평가
 - 다만 GDP통계의 측정과 관련하여 공유경제를 통한 가계의 생산활동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,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확한 가격 및 물량(price and volume) 측정은 이전보다 어려워져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
 - 회원국들의 디지털경제 측정 사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나라들이 기초자료의 제약 등으로 일부 디지털경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(캐나다) 최근 노동력조사(labor force survey)에서 우버, 에어비엔비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지출관련 항목을 추가한 시험조사에 대해 발표
 - 동 조사결과를 GDP통계에 당분간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공유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초자료 및 추계방법을 개발할 계획
- (미국) 디지털경제를 측정하고 경제성장에서 기술(technology)의 역할을

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착수한 디지털 위성계정에 대해 발표

- 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해 디지털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변화를 반영한 물가지수 개선, 공유경제의 포착, Google 및 Youtube와 같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 평가 등의 작업이 이루어 질 것임

○ (Eurostat) 유럽통계청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와 이를 포착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충방안에 대해 발표

- 공유경제는 비공식적이며 소액거래가 많아 전통적인 사업체 또는 가계 조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직접자료를 얻는 것이 효율적
- 그러나 중개서비스업자들이 다국적기업인 경우가 많아 각 통계기관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얻는다면 응답자의 부담과 비용, 자료보안의 문제 등이 발생
- 통계작성기관간 국제적 공조를 통해 집중화된 기초자료 입수방안 (centralized data collection)을 구축할 필요

□ (패널토론) 디지털경제가 GDP통계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장단 위원들을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

○ (OECD) 국가별 통계단위(statistical unit) 적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

- 아국 대표단장인 김영태부장은 최근 GDP통계의 과소추정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GDP통계의 포괄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미포착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
- 또한 새로운 경제현상을 반영하는데 있어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래들은 국민계정체계에서 포착하되 그 이상의 범위인 소비자후생 등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위성계정을 개발하는 이원화된 접근법(two tracks approach)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- 이는 2008 SNA 권고사항에 대체로 부합하나,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상이한 통계단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 국가 계정내에서도 복수의 통계 단위가 혼합적용되고 있는 상황

- 토론자들은 디지털경제를 SNA 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경제의 측정과 관련한 연구를 공유,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용어의 통일, 동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를 체계화, 디지털 경제를 포착하기 위해 기초자료 보유기관 및 통계작성기관과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함

□ (국민계정의 재설계)

○ (영국) 최근 국민계정 작성의 재개발(Re-developing)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

- 전년물가(PYP)를 적용한 공급사용표 및 자금순환표 작성, 행정자료의 탐구 등에 새롭게 우선순위를 부여
-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고차원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작성체계 마련을 큰 도약과제로 구상 중에 있으며 관련 의견 피력함

[그림 7] 기본 통계생산체계(안) 제시

